인도서 中 거쳐 한국까지…100장면으로 간추린 2600년 불교사

"인도의 바라문교나 힌두교는 모두 세속적인 종교이다. 그렇다 보니 통과의례가 발전해 있다. 유교 역시 예의라는 관점에서 통과의례가 고도로 발전되어 있다. 이는 오경(五經) 속의 '예기'니 신유교의 '주자가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불교에 불교만의 통과의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교시대에도 통과의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유교적인 가치가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교는 통과의례와 관련,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불교가 약화될 때 유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를 파악해야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가늠할 수 있다. 전자가 서양의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면, 후자(그 가운데 종교개혁)는 유럽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견인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떨까. 아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라는 프리즘을 들여다봐야 한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발생했다. 오늘날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이었다.

한국의 경우 불교의 수용은 동아시아 문화 중심지였던 중국과의 교류를 의미했다. 체제를 정비하는 데서 나아가 사찰과 탑을 매개로 건축 양식과 예술 발달을 견인했다. 조선시대 이전, 다시 말해 성리학이 동아시아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불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위치를 점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자현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자현스님 지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가지 100가지 핵심 장면으로 간추린 2600년 불교사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는 자현(玆玄) 스님이 펴낸 '자현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은 역사와 문화, 사상이 한 권에 어우러진 불교 종합 교양서다.

책은 크게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불교에서는 가비라국 왕자, 붓다의 탄생, 출가와 고행, 가르침의 전개와 교단의 형성 등 붓다의 생애와 불교의 성립에 관한 부분이 다뤄져 있다. 또한 아소카 왕의 인도 통일과 불교 진흥, 대승불교의 등장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밀교, 즉 비밀불교가 은밀하게 전수되는 과정, 힌두교화되는 불교와 안에서 무너지는 불교를 조명한다. 저자는 불교와 힌두교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로 신분제를 꼽는다. 불교 영역에서 살며 카스트와 무관했던 사람들은 최하위 카스트에 배속됐다. 그런 이유로 인간 평등을 주장한 이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교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 법성포. 이곳에서 인도 간다라 고승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광주일보 자료〉

역사와 문화·사상 한 권에 어우러진 불교종합 교양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
조선시대 이전 불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중국불교에서는 실크로드 개척과 함께 시작된 불교의 전파, 중앙아시아의 전래, 유목민의 중국 정복과 불교의 확대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위진남북조시대에 중국을 정복한 불교의 면면 등도 흥미롭게 전개된다. 세계 최강국 당과 종남산의 불교, 달마의 중국 도착과 선에 대한 갈망 등 중국식으로 변모하는 불교의 양상도 조명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과정이 기록돼 있다.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년),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 북조 전진의 위견이 승려 순도를 파견해 불상과 경문을 전했다. 고구려와 백제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데 반해 신라는 가장 늦게 수용했다. 그러나 삼국은 모두 불교를 통해 고대 국가의 초석을 확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산선문이 발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신라에서 고려로 전환됐으며,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승과 제도의 시행과 불교 종파의 통합, 팔만대장경의 판각, 선종을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 등 일련의 변화와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불교는 쇠퇴기에 접어든다.

한편 책에는 20여 개의 도표와 13개의 지도가 수록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또한 '베다와 카스트', '자이나교', '팔상계', '불교정화운동'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기사 등도 소개돼 있다.

〈불광출판사·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 —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아시아의 다음 노벨문학상을 거론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가가 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위화다. 위화는 중국 작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에게 '허삼관 매혈기'로 잘 알려진 그는 1993년 '인생'으로 중국에서만 400만부가 넘게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옌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위화가 이번에 펴낸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은 글쓰기와 독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책은 서울, 베이징, 파리, 프랑크푸르트, 뉴욕, 베오그라드 등 세계 곳곳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원래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과 삶을 이야기하는 글은 언제나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널리 알려진 작품을 쓴 작가가 하는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품의 뒷이야기와 창작 과정,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삶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설가로서 위화의 이력이 독특해지는 지점은 그가 소설 읽기와 쓰기를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는 데 있다. 대작가들이 성인이 되기 전 세계의 고전문학을 '떼는' 것과 달리 위화는 스무 살이 넘어서야 가와바타 야스나리, 헤밍웨이, 카프카, 스탕달, 마르케스, 푸르스트, 포크너 등을 읽었다. 쓰기와 읽기 경험이 중첩되며 이어지는 위화의 문학 유랑은 흥미롭다. 젊은 시절 그는 '글쓰기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했던 경험도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위화가 말하는 위대한 작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 요소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푸른숲·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라보다 — 이숙희 지음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숙희 시인이 '시산맥 서정시선'으로 '바라보다'를 펴냈다.

서정의 세계를 노래한 작품집에는 일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정감이 묻어난다. 체험과 단상을 통해 형상화한 50여 편의 시들은 한마디로 그리움과 슬픔의 미학이다.

시인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어머니의 존재는 시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모티브다. '어느 소풍날', '어머니와 함께 1', '어머니와 함께 2', '가자미 한 마리' 등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조를 읽을 수 있다.

"뼈에 고름이 찬다는/ 잔인하고 고통스런 병을 앓는 어머니/ 언니들 객지로 나가고/ 기죽은 봄소풍 날/ 한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 들고 오신 어머니/ 무장아찌 한 토막/ 볶음 멸치를 넣은 김밥을 먹고/ 선생님 노래 신청에/ 친구들 사이에 둘러앉아"('어느 소풍날' 중에서)

'어느 소풍날'은 유년의 소풍 기억을 배경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모두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 들고 소풍을 따라왔다. "무장아찌 한 토막"과 "볶음 멸치를 넣은 김밥"을 들고서.

시 전편에서 슬프지만 결코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안으로 삭이는 화자의 어조가 느껴진다. 아마도 그러한 슬픔은 시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진혜진 시인은 "시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슬픔의 방출구를 찾고 또 찾는 생을 찾아왔음이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때로는 감미로움, 때로는 목마른, 때로는 축축한 시의 열매로 이리 열린 것"이라고 평한다.

〈시산맥·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 스피어스 브라운 지음, 안진희 옮김

핑크 아니면 블루, 우리는 '젠더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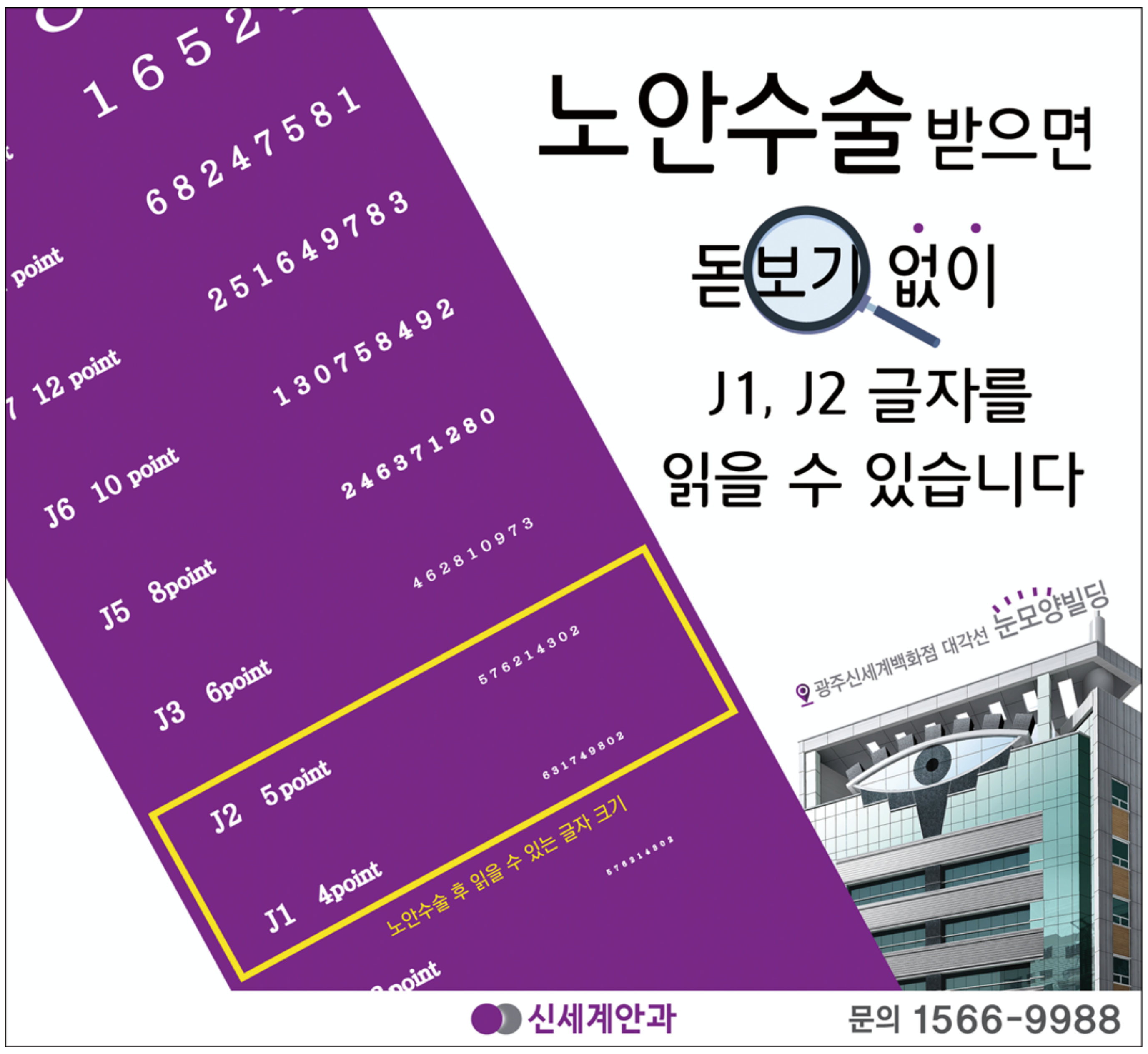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젠더 고정관념은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젠더가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20여 년간 연구해 온 발달심리학자 크리스티아 스피어스 브라운의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가 국내에 출간됐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이 왜 과학적으로 오류인지 조목조목 짚어 가며 반박한다. 그리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 선천적인 젠더 차이가 없음에도 부모와 사회의 젠더 고정관념이 아이들의 자존감, 학업 성취도, 직업 선호도 등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꽃피우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탄탄한 연구 결과와 지식에 기반을 두었을 뿐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바가 사례로 녹아들어 있다.

아이들의 삶은 '핑크' 혹은 '블루'로 양분돼 있다. 집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유모차부터 옷, 장난감 등 많은 것을 여자 또는 남자로 나눈다. 지은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판단하는 '젠더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대변되는 강고하고 선천적인 젠더 차이를 비판하면서, 여러 기존 연구를 분석하면서 남녀 간 차이가 극히 과장되었음을 차근차근 밝힌다.

〈창비·1만58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